

李, 경제라인 쇄신·정치인 전진배치… 국정 2년차 승부수

6개 부처 장관·참모진 인사

경제·부동산 라인, 전문 관료 출신
정치인 기용으로 정책 추진 속도
야당 현역의원 용혜인 ‘깜짝 발탁’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기획부 장관을 비롯해 6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공석 참모진을 채우는 중폭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경제정책 라인 교체로 정책 집행의 엄밀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고, 정치인 발탁을 통해 부처 장악력과 정책 실행력을 높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여당 출신이 아닌 야당의 현역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지명한 점도 ‘깜짝 발탁’이라는 평가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이 대통령이 ▲재정경제부 장관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 ▲국토교통부 장관에 홍지선 현 국

6개 부처 장관 후보



이형일
경제부총리·재정경제부 장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신철
국방부 장관



김승원
법무부 장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토부 2차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방부 장관에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법무부 장관에 김승원 민주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을 각각 지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2년차에 단행된 이번 중폭 개각은 경제정책 라인 교체와 정치인 출신이 많다는 점이 눈에 띈다. 집권 2년차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고 정책의 집

행 속도를 높이려는 취지로 볼 수 있다.

이형일 재경부 장관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차관보 등 경제·금융 분야 요직을 두루 거쳤다. 홍지선 국토부장관도 경기도 도시주택실장 등 정책 설계부터 집행까지 현장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손발을 맞춘 이력도 있다.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인 재경부와 국토부 수장이 동시에 전문 관료 출신으로 교

체된 만큼, 향후 정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실행 과정에서 정밀하게 조정·보완할 사항을 살필 수 있을 것이란 평가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는 이소영 민주당 의원, 법무부 장관으로는 김승원 민주당 의원,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는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지명됐다. 모두 현역 의원 출신으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결과를 반영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특히 김승원 후보자는 판사 출신의 재선 의원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으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의원 모임’에서 윤건영 의원과 함께 공동대표이기도 하다.

재선 의원인 이소영 후보자는 기후에너지 전문가로,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기업위 위원으로도 활동했다. 스타트업 지원 및 소상공인 보호 입법을 중점적으로 살핀 점을 고려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1990년생인 용혜인 후보자는 ‘깜짝 발탁’이라는 평가다. 여당이 아닌 현역 국회의원이 각료로 지명된 것은 DJP(김대중-김종필)연합’으로 연립정부를 구성했던 1998년 이후 처음이다.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는 주(駐) 사우디아라비아 특명전권대사로 합참 작전본부장 등 요직을 거친 4성 장군 출신인 강신

청와대 공석 참모진 후보



이혜민
청 A미래기획수석비서관



이원주
청 메가프로젝트 보좌관



하정우
국가안전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수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

철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명했다. 강 후보자는 육사 46기 출신으로 국가안보실 안보국방전략비서관,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부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등 핵심 요직을 거친 ‘육사 성골’이라는 평가다.

청와대 참모진 개편은 쇄신보다는 보강에 중점을 뒀다. 청와대 A미래기획수석으로 발탁된 이혜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구글 엔지니어 출신으로, AI 기본법을 대표발의하는 등 전문성을 고려했다. 신설되는 청와대 메가프로젝트 보좌관(가칭)으로는 이원주 기후에너지환경부 에너지전환정책실장이 내정됐다. 국가안전기획(AI)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하정우 전 A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임명됐다.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에는 김경수 전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이 위촉됐다.

/서예진 기자

syj@metroseoul.co.kr



metro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1965

SINCE

NH농협생명

60년을 넘어 한결같이
고객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대한민국 구석구석을 밝혀 온 NH농협생명.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위해
모두의 인생을 비추겠습니다.

NH농협생명이
든든한 빛이 되겠습니다

NH농협생명

대망같이

MB 만나는 국힘, ‘단합’ 행보

정점식 대표, 오늘 이 전 대통령 예방
당내 신뢰·화합 메시지에 관심

국민의힘 당 지도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찾는다. 지도부의 박 전 대통령 예방이 연설회 참석으로 이어졌던 만큼, 이 전 대통령 예방 이후에도 추가적인 접점이 마련될지 주목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점식 원내대표는 오는 31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지난 1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찾은 지 12일 만이다. 당 지도부는 이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6·3 지방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유세를 지원한 데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국민의힘에 화합과 외연 확장을 주문해 왔다. 그는 지난 1월 자신을 예방한 장동혁 대표에게 “당은 항상 국민을 보고 정치해야 한다. 지금은 단합할 때”라고 전한 바 있다.

최근 국민의힘은 당협위원장 선출 방식과 비(非)당권파 의원들에 대한 장계 등을 둘러싸고 내용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 비춰볼 때 이 전 대통령은 이번 만남에서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앞서 국민의힘 연설회에서도 ‘신뢰와 단결’이 주요 화제로 떠올랐다. 장 대표는 지난 28일 고양시 소노캄 고양에서 열린 연설회를 마치면서 “정당과 정치는 국민에게 신뢰를 얻어야 한다. 그 신뢰를 얻는 방법은 진정성”이라며 “국민의 삶을 더 잘 챙기는 정당을 만드는 것이 개혁과 혁신이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27일 연설회에 참석해 의원들에게 국민과의 신뢰 회복과 당의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정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다. 국민이 바라고 걱정하는 것을 진정성 있게 해결해 나가면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용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국민의 힘 내부에는 과거 친박(친박근혜)계와 친이(친이명박)계로 나뉘었던 흔적이 남아 있다”며 “현재 당권파에는 친박계 성격을 띠지만 친이계 쪽은 강성 보수는 아닌 만큼 당권파와 비당권파를 모두 아우르려는 행보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지금 사실 국민의힘 자신의 힘으로 당내 상황을 수습하기 힘들다는 또 다른 표현일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박경수 수습기자 gws0325@